

#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전략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

# I. 조사설계서

## 1. 조사의 필요성

중아시아는 10/40창<sup>1</sup>안에 속한 지역으로써 현대 선교에서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이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중아시아는 크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으로 분류된다. 이 5개국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은 중아시아 내 모든 국가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중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이 위치한 영토는 역사적으로 중요했다. 고대시대부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역할을 했던 이 지역을 지배하는 민족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곳의 패권을 놓고 주변국가들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역사 속에서 늘 주목 받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중심 속에 있던 우즈베키스탄도 1920년대에 구 소련에 편입되면서 다른 중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1991년 독립 후 이들은 상실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은 민족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슬람교는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종교로 자리 잡았고 우즈베크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슬람교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방관적 혹은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른 종교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최근 중아시아 내의 종교법<sup>2</sup>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의 종교적 활동이 많이 제한되며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종교행위에 대한 검문 검색과, 고소

---

<sup>1</sup> 선교단체들이 규정하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북위 10~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창지역은 사하라사막과 북부 아프리카,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구의 2/3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용어는 1990년 선교전략가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 만들어졌다. <위키 백과사전>

<sup>2</sup>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법을 통한 종교활동의 자유가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고발이 더욱 심해지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회 공동체의 해체가 일어났다. 특별히 안디잔 유혈 사태<sup>3</sup> 이후로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자국민 개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수 많은 NGO단체들의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책은 기독교탄압 세계 11위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선교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 도출 되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을 통한 선교이다.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외국인 선교사나 기독교의 활동이 비교적 개방적이며, 신학교 같은 선교활동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 국가간의 교류는 주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활발하다. 특별히 우즈벡 종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침켄트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우즈베크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내에 있는 우즈벡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선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별히 최근에는 침켄트 인근지역인 투르키스탄을 이슬람성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침켄트의 복음화 여부는 앞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기독교 복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 국가에 있는 우즈벡 종족의 성향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 소련체제하에서 민족성이 상실되었다는 전제아래 선교의 접촉점을 찾는 데에 있어 국가적 특성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종족적 특성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내 우즈벡 종족을 조사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선교적 가능성들을 검증하고 기독교에 대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조사의 목적

### 1) 침켄트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

<sup>3</sup>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의 동부지역 주요도시인 안디잔에서 발생한 항쟁으로, 우즈베키스탄정부에 따르면 17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1000여명이 사상하였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과의 연관성 및 민족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 2)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침체와 맞물려 우즈벡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 3) 침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벡인들을 복음화시킴으로써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을 선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4) 침켄트 지역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을 교계와 선교계에 알려 중보기도자와 그들을 양육할 선교사를 동원한다.

### 3. 조사지역

- 1) 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시
- 2)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타슈켄트시, 사마르칸트주 사마르칸트시

### 4. 조사대상

- 1) 우즈벡 종족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거주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며 카자흐스탄 남부지역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서부지역에도 많이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 종족은 자신들을 'zbe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5. 현장조사기간 : 2007년 12월 27일 ~ 2008년 1월 17일<sup>4</sup>

---

<sup>4</sup> 이 기간은 현장에서의 조사시간 만을 포함하는 기간이다. 본 조사팀은 2007년 9월에 구성되어 5개월 간 10주간의 학기 중 훈련(리서치 강의, 예배, 말씀양육, 캠프 2회, 리서치실습, 선교세미나, 부서모임, 지역연구 모임 등), 10일간의 합숙훈련(강의, 예배, 사전조사, 팀워크 훈련, 역할점검 등), 3주간의 현장조사, 10일간의 보고서 합숙 과정을 통해 리서치를 수행하였다.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

기간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2007/12/30- 2008/01/09	남카자흐스탄주 침켄트(Shymkent)시, 싸이람(Sairam)시, 악수켄트(Aksukent)시	시민 및 대학생39명	인터뷰
		A교회 사역자 2명	인터뷰
		침켄트 시립도서관	문헌조사
2008/01/11- 2008/01/12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qand)시	현지 주민 2명	인터뷰
		B회사 실장 1명	인터뷰
2008/01/13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시	C 선교사	인터뷰

## 6. 조사인원

###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중앙아시아 현지 조사팀<sup>5</sup> 6명

	이름	학부 (학번)	역 할
1	강문수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03)	디렉터 및 예배부 부장
2	이원	상담사회복지학부(01)	총무부 부장
3	방성현	상담사회복지학부(06)	문서 자료부 부장
4	김영준	글로벌리더십학부(07)	미디어부 부장
5	최훈	생명식품과학부(03)	문서자료부 부원
6	홍경선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03)	미디어부 부원

<sup>5</sup>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의 선교 훈련 단체인 GFR(Global Field Research)에 소속된 8개 지역조사팀 중 CAFR(Central Asia Field Research) 훈련팀을 말한다. GFR 훈련 체계의 1단계인 훈련팀(Training Team)은 미전도 종족 조사에 중점을 두고 훈련되며, 다음 단계로는 주제별 현장조사에 중점을 둔 미션팀(Mission Team)과 전문가팀(Expert Team)이 있다.

## 2) 통역자 3명

	이름	소속	역할
1	D	G 회사	러시아어 통역
2	E	A 교회	러시아어 통역
3	F	A 교회	러시아어 통역

## 7. 조사방법

### 1) 사전조사

#### (1) 문헌 조사

##### ① 인터넷 조사

- <https://www.cia.gov>
-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http://www.kazembassy.org/>
-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http://kaz.mofat.go.kr/>

##### ② 문헌 조사

- 중앙아시아 연구( 최한우 저 2003, 2004 )

#### (2) 인터뷰

- ①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사 ( 한동대학교 03' 강지원 )
- ② 카자흐스탄 유학생 H ( 한동대학교 07학번 )

### 2) 현장 조사

#### (1) 관찰 조사

- ① 모스크 방문: 알마티(Almaty), 침켄트(Shymkent) 및 그 주변도시
- ② 대학교 방문 : 남카자흐스탄 주립대학교
- ③ 마을 관찰 조사: 싸이람(Sairam), 합자, 자바담

#### (2) 인터뷰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

- ① 전문가 인터뷰 : 남카자흐스탄주립대 경제학과 학장,  
침켄트 거주 한국인 사업가, 침켄트 거주  
목회사역자
- ② 일반인 인터뷰 :-A교회 우즈베크인 집사 외 시민 및 대학생 44명

### (3) 문헌 조사

- ① 통계자료집 「Statistical Real Book of Kazakhstan 2005」

##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팀이 조사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침켄트는 그 규모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선교적 가능성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침켄트는 카자흐스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도시이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이슬람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도시이며, 앞으로 기독교 선교의 역량이 집중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별히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최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교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부흥의 지속을 위해서는 침켄트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침켄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이 지역의 선교 전략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조사팀의 연구가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침켄트에 있는 우즈벡 종족 선교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선교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의 차이가 두 지역에 있는 우즈벡 종족의 민족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으며, 우즈벡 종족이 침켄트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의 차이가 두 지역에 있는 우즈벡 종족의 생활과 문화에 큰 차이를 주지 않았으며, 서로간에 문화 충격 없이 살아 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침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인근에 있는 침켄트가 우즈베키스탄의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중시하고 정이 많은 우즈베크인의 성향이 정서적으로

한국인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한국인이 우즈벡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본국이 아닌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전체 우즈벡 종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우즈벡 종족의 전반적인 특성이 국가적 상황을 떠나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특성 즉, 정치나 경제적 상황이 이들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기에 단지 종족적 특성만으로 이들에 대한 선교전략을 제시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본 조사팀이 중점을 뒀던 부분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 내의 우즈벡 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난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에 노동자를 통한 선교전략을 제시하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팀이 제시한 침켄트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현재의 상태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었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침켄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그 선교적 가능성과 접근 방법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침켄트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적 부흥을 지속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 II. 들어가는 말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종교탄압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아시아의 중심지이며 중앙아시아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벡 종족이 중앙아시아 모든 국가에 국가 인구 구성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즈벡 종족은 중앙아시아를 향한 선교적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닌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우즈베키스탄은 종교탄압으로 인해 선교사의 활동과 현지인의 복음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추방되는 등의 탄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선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주변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 인접지역이며 우즈벡 종족이 많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의 침켄트(Shymkent)와 키르기스스탄의 오쉬(Osh)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지역의 복음화는 곧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별히 많은 우즈벡 종족이 거주하며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침켄트는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많은 우즈베크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침켄트와 오쉬 중 지리적, 경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침켄트를 위주로 보고 하겠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보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종교비자도 허용되고 있다.<sup>6</sup>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이며 남카자흐스탄주의 주도이기도 한 침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 도시의 전체 인구 중 약 15%가 우즈벡 종족이며 이들은 특정지역에 집단거주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우즈베키스탄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우즈벡 종족들이 일을 하러 이 도시로 많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듯 침켄트는 우즈베크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복음화는 곧 이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다. 실례로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셀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국경을 넘는 일도 있으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불법노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일도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sup>6</sup> 교회는 등록을 해야 하며, 선교 활동은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

침켄트에서의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선교는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와 직결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복음화시키고 우즈벡 종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기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Ⅲ.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현황

#### 1. 일반개요



<그림Ⅲ- 1> 카자흐스탄의 지도

#### 1) 지역개관

카자흐스탄 내에서 우즈벡 종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침켄트(Shymkent)는 알마티(Almaty), 아스타나(Astana), 카라간다(Qaraghandy)에 이은 카자흐스탄 제4의 도시로써 산업 및 문화 중심지이며, 중요한 철도 교차점이기도 하다.

침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자동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2002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을 앞서면서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오고 있다. 특별히 현재 카자흐스탄은 나라전체가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 붐에 휩싸여 있다<sup>7</sup>.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 온 많은 수의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수요를 대부분 충당하고 있다.

침켄트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sup>7</sup> [해외건설 새시장이 뜬다] 중앙아시아 황금시장 카자흐스탄, 파이낸셜 뉴스 2007년 1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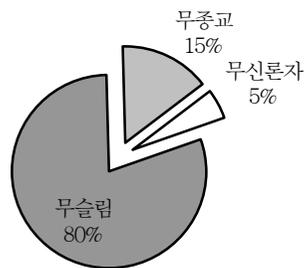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침켄트 인근에는 투르키스탄이라는 이슬람의 성지가 위치하고 있고 이슬람에서도 침켄트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종교적 탄압이 심하고 카자흐스탄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비교적 신앙생활이 자유로워 침켄트의 복음화는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2) 언어

우즈베크어는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다. (우즈베크어는 1923년 아랍문자로 표기되었으며, 1927년에는 라틴문자로, 그리고 1940년대에는 키릴문자로 바뀌었다. 그 후에 1990년대 초반에 우즈베키스탄 국가 공식 표기문자를 다시 라틴어로 바꾸었다. 국가 공식 표기문자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문학이나 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8</sup>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우즈베크인들이 서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도 서로의 글을 읽지는 못한다.)

## 3) 정체성

우즈베크(Uzbek)이라는 말은 투르크어로 자기 자신, 핵, 중심; 진짜, 순수한' 이라는 뜻을 가진 Oz라는 단어와 백부장의 뜻을 가진 bek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로써 '진짜 백부장' 과 비슷한 뜻을 가진다. 진짜 백부장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우즈베크 사람들은 '우즈베크' 이라는 단어에 자부심을 보인다.



<그림Ⅲ- 2> 우즈벡 종족의 종교 현황

<sup>8</sup> 본 항목은 타슈켄트에서 16년간 살았던 마디나(Madina, 25세)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1) 주요종교

우즈베크인의 약 80%는 수니파 무슬림이고, 무종교 15%, 무신론자 5%이다.<sup>9</sup>

(2)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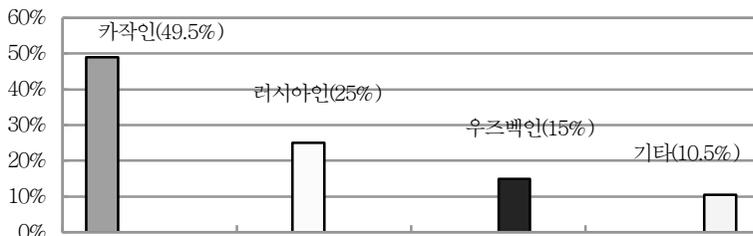
우즈베크인에게 이슬람교는 종교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버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침켄트에 있는 우즈벡 종족도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



우즈베크인들은 전통적으로 상업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침켄트에 우즈베크인이 많이 거주함으로 인해 카작인들 또한 우즈베크화되었다. 때문에 침켄트의

카작인들은 대부분 거상이 라고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림 3> 침켄트의 이슬람 모스크

4) 분포 및 인구



<그림 4> 침켄트의 인구 구성 비율

침켄트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53만 9600명<sup>10</sup>이나,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비 공식적인 인구가 공식인구와 인구 차이가 나는 것은 침켄트

<sup>9</sup> www.cia.gov

<sup>10</sup> 위키백과 www.wikipedia.org

가 카자흐스탄 남부의 경제중심지이다 보니 취업을 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불법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노동사회자원부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우즈베키인이 372,900여명이 공식 이주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우즈벡 민족은<sup>11</sup>종족끼리 집단거주를 하는데 이들은 종족의 특징을 따라 침켄트 내의 싸이람 라이온<sup>12</sup>, 합자 라이온, 자바담 라이온과 침켄트 인근의 싸이람, 투르키스탄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 5) 위치 및 환경

침켄트는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옹투스틱(南) 카자흐스탄주의 주도로 텐산(天山)이 시작하는 곳에 있으며, 시르다리아강의 지류인 바담강 연안, 우감 산맥 기슭의 해발 508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접경지역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가깝다. 이와 함께 키르기스스탄과도 매우 가깝다. 이 같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침켄트는 카자흐스탄과 주변국가를 잇는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한 침켄트는 1월 평균기온은 -3도, 7월 평균기온은 29도이다. 카자흐스탄은 전체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 6) 역사

우즈베크인들의 역사를 살펴 보면 그들은 중앙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그들의 영토인 투르키스탄을 침범한 정복자들과 수 세기에 걸쳐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투르키스탄 지역의 분쟁은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더불어 시작하여, 7-8세기에는 아랍과 투르크의 분쟁으로 이어졌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과의 싸움이 있었다. 그 후 14세기 티무르가 우즈베키스탄을 정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으며 이 때가 아마도 우즈베크인에게 문화와 교훈을 가져다 준 가장 번성한

---

<sup>11</sup>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608,090명(154,963세대)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으며 61.5%가 우즈벡사람이고, 13.8%가 몽골사람이며 투르크멘사람과 중국사람은 각각 8.5%, 7.7%였다. <출처 : 우즈베키스탄 교민일보 2008년 1월 7일자>

<sup>12</sup> 라이온은 우즈벡어로 구역이라는 뜻이다. 도시내의 행정구역을 나눌 때 라이온으로 표기한다.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 7) 요약

침켄트에 있는 우즈벡 종족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상황이 우즈베키스탄보다 나은 것으로 인해 그들의 국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우즈벡 종족은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벡 종족과 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침켄트의 복음화는 곧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와 직결될 수 있다. 이는 곧 침켄트 지역의 복음화가 곧 중앙아시아 전체의 복음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계에서도 침켄트의 인근지역인 투르키스탄(Turkistan)을 이슬람의 성지로 만들자는 운동이 생겨날 만큼 이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반드시 복음화시켜야 향후 이슬람의 북진을 막아주고 기독교가 남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 2. 정치분야

### 1) 개요

1991년 독립과 함께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이 즉위하여 지금까지 독재정치를 하고 있으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도 성공하였다.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민족통합정책을 쓰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위직 및 주요관직에는 카작인들만 진출할 수 있다.

### 2) 정치구조

우즈베크인이 주로 거주하는 침켄트 지역은 카자흐스탄 영토이므로 카자흐스탄의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 종족만의 공식적인 정치구조는 없다.

---

<sup>13</sup> 여호수아 프로젝트 [www.joshuaproject.com](http://www.joshuaproject.com)

우즈베크인들은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정치계에 진출하지만 요직에는 진출하지 못한다.

### 3) 행정구조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는 민족 공존정책에 따라 민족이나 지역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즈베크인들은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침켄트가 전체적으로 야당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끔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다.

### 4) 치안

거리를 지나다 보면 경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교통과 관련된 문제들에 경찰의 업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만 한국에 비할 수는 없다. 최근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카작 민족의 민족주의가 강해짐에 따라 타 종족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카작인 3명만 몰려 다녀도 경찰들이 경계하여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 5) 요약

우즈베크인들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이 안정된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현 대통령을 신임하기에 카자흐스탄 정국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내의 선교는 타 국가보다 매우 안정적인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다. 외국인이 들어가서 생활하기에도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

## 3. 경제분야

### 1) 개요

우즈베크인들은 상업에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침켄트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카자흐스탄의 큰 장사꾼들은 침켄트 출신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침켄트 출신의 재력가들이 고향인 침켄트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침켄트가 발달하게 되었다.

## 2) 산업구조<sup>14</sup>

### (1) 침켄트의 공업 현황

침켄트는 구 소련 시절부터 인공장이 유명하다. 그리고 과거에는 타이어 공장도 유명했다. 침켄트는 카자흐스탄의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는 곳은 많지 않다. 침켄트의 주요 공업은 화학산업, 핵물리산업, 우라늄 산업, 우주 산업이다.

우즈베크 남성의 대부분은 택시 운전이 종사하거나 주로 상업에 종사한다. 침켄트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00불 정도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평균 임금은 낮다.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우즈베크 청년들이 일을 하러 넘어오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미장, 조적 등 건설관련 단순노동자이다. 그들 중 불법으로 넘어오는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개인주택 건설노동자로 종사한다.

## 3) 주요 생산품<sup>15</sup>

침켄트는 면과 우라늄으로 유명하다. 특별히 침켄트인근 싸이람시에는 15개의 면 생산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 침켄트의 깨끗한 물로 인해 전통적으로 생수와 관련된 사업이 유명하며 구 소련시절에는 맥주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 4) 요약

장사에 능한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침켄트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

<sup>14</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6일 침켄트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인 배대환 사장(보일러 난방사업)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15</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4일 침켄트 내 남카자흐스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학장 조교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침켄트는 예로부터 인공장이 유명했으며 최근에는 면과 우라늄으로도 상당히 유명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우즈벡 노동자가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침켄트로 많이 이주해 오고 있다. 침켄트에 있는 교회가 노동자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복음전과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으로 일하러 오는 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우즈벡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역자가 필요할 것이다.

## 4. 생활분야

### 1) 개요

이전의 우즈베크인들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착인들이었다. 유목민의 특색을 가지고 있던 카작종족들은 농경, 정착 문화를 발달시킨 우즈벡 종족에게 부러움을 가지고 우즈벡 문화를 많이 수용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는 우즈베크인들이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즈베크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다.<sup>16</sup>

### 2) 식생활<sup>17</sup>



주요 식료품은 감자, 곡물 등 채식의 소비가 전체 식품소비의 57%를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육류의 가격은 다른 식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그림Ⅲ- 5 우즈벡 종족의 손님 접대>

<sup>16</sup> 본 항목은 A교회 사역자, 살도르 외 다수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sup>17</sup> 우즈베키스탄 리포트 [www.uzbek.co.kr](http://www.uzbek.co.kr)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

우즈 벡인들은 음식에 기름을 많이 이용하며 주로 뽕밥, 샤슬릭, 난, 차이를 먹는다. 또한 단 음식도 식탁에 빠지지 않는다. 식탁에는 빵, 밥, 고기, 야채 등을 담은 접시와 사탕, 케이크, 초콜릿 등을 담은 접시가 함께 올라온다.

<표 III- 1 우즈벡 종족의 식생활>

음식이름	간략한 설명
뽕밥	한국인들은 주로 기름밥 이라고도 부른다. 달걀 양기름에 양파와 고기(양고기, 쇠고기)를 넣고 익힌 후 노란 당근을 넣어 볶는다.
리뽀쉬까	항상 우즈벡 식탁에는 빠질 수 없는 주식으로, 탄드라' 라는 큰 진흙가마에서 구워지는 빵이다. 보통 원형모양으로 두꺼운 피자 빵과 비슷하며, 둘레는 두껍고 가운데는 얇고 편편하며, 표면에 깨나 향신료를 뿌린다.
샤슬릭	미리 향신료로 양념한 양, 소, 닭,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 숯불에 구워먹는 음식으로 양파에 식초를 뿌려 함께 먹는다.
삼사	밀가루로 반죽한 한 입 크기의 반죽에 속(양파와 고기 다진 것 등)을 넣고 원하는 모양으로 오븐이나 가마에 구워 만든다. 주로 세모 또는 둥근 모양이다.
슈르빠	고기를 끓인 후 감자,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을 넣어 끓인 국이다.
라그만	우즈벡식 짬뽕이라 불린다. 국수는 두껍지만, 한국이나 중국식 국수와 달리 탄력이 적고, 국물에는 기름이 상당히 많다.
차이	차이에는 주로 홍차와 녹차 두 가지 맛이 있다. 기호에 따라 설탕과 레몬, 우유를 차이에 함께 타서 마신다.

3) 의복<sup>18</sup>

<표 III- 2 우즈벡 종족의 의복>

의상	설명
전통의상	우즈벡 종족의 전통 의상은 남녀 모두 흰색의 실로 짜서 화려한 무늬를 놓은 화모(花帽)이다. 남자들은 여름에는 목둘레와 소매에 아름다운 무늬가 수 놓여진 윗도리를 입고, 여자들은 원피스나 셔츠를 입으며 때로 곁에 꽃무늬가 화려하게 수 놓여진 조끼를 걸쳐 입기도 한다.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

<sup>18</sup> 우즈베키스탄 리포트 www.uzbek.co.kr

##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

	<p>남녀 모두 양모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전통적인 우즈베키스탄의 의상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남자는 '초판'이라고 부르는 길고 앞 단이 트인 옷을 입는다. 팔 부분은 손등까지 덮이는 긴 팔이고 통은 조금 넓지만 한국의 도포처럼 넓지는 않다. 색상은 다양하지만 주로 짙은 회색이나 군청색 혹은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진 검은색이며 겨울에는 천을 두껍게 하여 누비기도 한다. 머리에는 무슬림임을 상징하는 추피차이카라는 모자를 쓰는데, 사각형의 돔 모양에 흰색 실로 아라베스크 문양을 4군데 새긴다. 추피추이카는 간편하게 평면으로 접을 수 있으며 재질은 카키색이나 검은색의 종이이다.</p>
<p>툰</p>	<p>'툰'은 전통의상으로 '또쁘'로 불리는 모자, '브착'이라는 칼을 패용하며 관혼상제 및 겨울철 여행할 때에 자주 입는다. 여자들의 복장은 앞이 트이지 않은 원피스 형태이다. 치마단은 정강이까지 내려오도록 길다. 머리에는 차도르를 두르며, 차도르 대신 실크나 순면으로 된 현란한 아라베스크 무늬의 스카프를 삼각형으로 접어 머리 뒤쪽으로 묶어 맨다. 가운데처럼 앞이 트이고 오른쪽으로 트이게 여며 허리를 끈으로 묶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외출복으로는 입지 않는다. 색상은 가지각색이지만 주로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자주색 등이 현란하게 짜인 천이 가장 전통적이다. 한가지 색이라도 무늬를 넣은 것을 선호한다. 재질은 실크나 면류이다.</p>
<p>명절 때 입는 옷</p>	<p>우즈벡 민속 의상은 목도리로 묶여져 있고 밝은 색깔로 줄무늬가 되어있는 긴 옷이다. 덤이라고 불리는 잘 수놓아진 실내모자(골무형)를 대부분의 남자들이 쓰고 있다. 여인들은 색깔이 있는 밝은 비단옷들을 입으며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종종 비단으로 수놓아진 골무형 모자를 쓴다. 우즈베키인들은 캄줄이라는 화려한 금자수가 놓여져 예식용 의복을 선호한다.</p>
<p>현대</p>	<p>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현대서구문명의 영향으로 서구적인 옷들을 입지만 일부 지방이나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의상을 입는다. 여성들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경우가 많다.</p>

### 4) 대중매체 보급률<sup>19)</sup>

<sup>19)</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7일 악수켄트에 거주하는 모함맛(50대 중반)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침켄트 인근에는 TV, 신문의 보급률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는 TV시청을 한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과 우즈벡 사람들은 정서적인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서 익숙하고, 또 드라마구성이 탄탄해서 한국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내 우즈벡인들은 위성TV를 통해 뉴스와 우즈벡 채널을 주로 본다. 유럽채널이 방송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작한 방송을 보기도 하며, 카자흐스탄 내에 우즈벡 종족을 위한 채널이 있다.



거의 모든 우즈벡인들의 집에는 DVD가 있다. 우즈벡인들은 영화DVD를 사서 보기도 하며 DVD를 이용해서 음악을 틀거나 결혼식영상을 보기도 한다. 우즈벡인들은 영상과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한다.

## 5) 요약

우즈벡 종족은 평소에는 그들의 주식인 난이나 차이를 위주로 식사를 하지만 잔치를 벌이거나 손님을 접대할 때는 매우 성대하게 식사상을 차린다. 그들만의 전통의상이 있으나 요즘에는 예전처럼 많이 착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발달로 러시아,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우즈벡어로 된 방송을 보기도 한다.

우즈벡인들은 거의 모든 집에 TV와 DVD가 있고 컴퓨터 또한 점점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즈벡 종족의 언어로 된 예수영화가 있지만 보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우즈벡인들이 대부분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교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5. 사회분야

### 1) 개요

우즈벡 종족은 우즈벡어로 마을이란 뜻을 가진 마할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마할라를 중심으로 상부상조하고 경조사를 함께 나눈다. 마할라를 통해 우즈벡 종족의

공동체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우즈벡 종족의 종교는 제도화 되고 관습화되었다. 우즈벡 종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상관 없이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2) 가족구조

농경문화에 따른 정착민족으로서의 특성을 가져 전통적으로는 3~4대가 모여 살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자녀들이 결혼 후 분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막내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관례이다. 우즈벡 종족은 어린 공경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적 태도를 취한다. 가장인 아버지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한다.

## 3) 사회적 모임<sup>20</sup>

깡이라는 남성들만의 모임이 있으며, 이 모임에서는 결혼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들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이며 한 마할라에 있는 모든 남자 어른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안전들을 토의한다. 여자들끼리만 모이는 모임도 있다. 이 모임은 비공식적인 형태를 띄며 주로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자유롭게 이뤄진다.

마할라가 형성된 것은 씨족 공동체가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부터이다. 하지만, 마할라가 씨족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지역에 모여 살면 마할라의 일원이 된다. 한 마을 안에 보통 여러 개의 마할라가 존재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즈벡 종족들 간에는 공동체의 결집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벡 종족의 본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대도시 사마르칸트나 타슈켄트보다 침켄트 지역에서 마할라가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할라에서 공동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공권력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마할라가 법적 영향력을 뛰어넘을 만큼 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이다. 경찰 조사에 있어서 유리한 진술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악사칼이다. 악사칼은 흰 수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연장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인정해서 마할라의 어른들 중 가장 지혜 있고, 덕망

<sup>20</sup> 본 항목은 2007년 12월 31일 침켄트내 자바담 지역에서 현지인 압두말릭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있는 자를 선출한다. 악사칼은 집단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친척과의 교류가 잦은 편이며, 마할라보다 친척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마르칸트에 사는 대학생 나르기자(22)의 경우 집 주변에 사는 이웃들 중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고 했으며 그들보다는 친척들과 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촌일수록 마할라의 역할은 커진다.

####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즈벡 종족은 현 정부의 민족 정책에서 차별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정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sup>21</sup> 하지만 대학생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을 한다고 느끼고 있다. 카작 종족과 우즈벡 종족의 사이는 대체적으로 좋으며 소수의 민족주의자들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 5) 현재 이슈

중국과 인접해 있어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제조업의 발전이 어렵다. 카자흐스탄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임금 등에서도 중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공업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sup>23</sup>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노동자들의 이주가 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608,090명의 이주자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했으며<sup>24</sup>, 그 중 61.5%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부문에서 54%, 채광공업 17%, 농업 12%, 가공업 6% 등 각 산업분야에 종사한다.<sup>25</sup>

---

<sup>21</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1일 침켄트내 자바담 지역에서 현지인 다히라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22</sup> 2008년초, 침켄트에서 일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민족운동이 일어나 2명의 쿠르드인이 죽고 쿠르드인의 가옥 10채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sup>23</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6일 침켄트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인 배대환 사장(보일러 난방사업)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24</sup> 우즈베키스탄 교민일보 2008년 1월 7일자

<sup>25</sup> 카자흐스탄 아리랑정보 2008년 1월 8일자

## 6) 여성의 역할

침켄트 인근의 많은 우즈벡 여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결혼을 이유로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하는 여성도 적다. 물론, 자신의 부인들이 주부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남성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약간의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sup>26</sup> 남성이 여성의 가사 일을 돕는 경우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여성의 법적 지위가 남성보다 약간 높다. 여자가 모든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이혼 시 남성은 강제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혼은 여자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sup>27</sup>

## 7) 요약

우즈벡 종족은 마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즈베크인을 선교할 때에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마할라 단위를 하나의 선교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할라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즈베크인들로 하여금 가족이라고까지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관계를 통한 전도에 있어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우즈벡 종족이 다른 민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28</sup>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들은 서로간에 별다른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우즈벡 종족 선교를 통해 다른 종족의 선교도 연계가 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다.

## 6. 문화분야

---

<sup>26</sup> 본 항목은 현지인 모함맛, 굴바오르, 다히르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27</sup> 본 항목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I선교사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28</sup> 본 항목은 침켄트에 거주하는 마디나(25)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1) 개요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벡 종족은 우즈벡 문화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즈벡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별히 우즈벡 종족만의 독특한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며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즈벡 종족만의 문화는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발전적으로 잘 계승되고 있다. 우즈벡 종족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님 접대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손님 접대 문화는 집과 집 사이가 매우 멀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에서 유래했고 이슬람적 특성으로 인해 대다수의 우즈벡인들은 손님 접대를 즐거움으로 여긴다.

## 2) 예술

라باط은 전통 피리의 이름이고, 다히락은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악기이며, 카르나이는 긴 나팔이다. 우리 나라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쉬꼴라에는 전통음악 동아리가 있다. 우즈벡인은 대체적으로 시를 매우 좋아한다. 우즈벡인으로 유명한 문학가에는 노보이(사마르칸트 출신), 바보르(인도로 간 시인)가 있다. 모든 우즈벡인들이 ‘검은 눈동자’ 라는 의미의 카라쿠즘이라는 전통음악을 알고 있다. ‘아제드 노보이’ 라는 사람이 눈동자처럼 귀한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에서 곡을 지었다.

## 3) 명절, 축제오락

3월에 ‘나오투스’ 라고 하는 우즈벡 무슬림들의 새해 축제가 존재한다. 우즈벡 사람들은 밤 늦게 축제를 시작하여 새벽까지 축제를 가진다. 새해에 이웃을 특별히 초대하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손님이 방문하면 환영하며 맞이한다. 그러나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을 방문하여 인사드리는 것이 예절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서로 친척을 방문해서 새해를 축하하기도 한다. 새해 자정에 서로 오고 가며 인사하는 문화가 있다.<sup>29</sup>

---

<sup>29</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1일 침켄트 내 자바담 지역에서 현지인 어들(75세)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4) 결혼과 장례

##### (1) 결혼<sup>30</sup>

결혼식은 하루에 두 번 한다. 먼저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신랑 집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식 날 아침 100명 가량의 신랑 쪽 남자친구들만 여자 집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인 뽕몹을 먹는다. 그리고 남자 친구들이 오후 세시 정도에 여자 집에 가서 춤추고 또 뽕몹을 먹는다. 이 때 신랑이 친구들 한 명씩 먹여준다. 다음으로 신부 쪽 친구들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한 뒤 남자 집에 가서 결혼을 하는 식이다. 결혼식에는 마할라 사람들과 친척 포함 300명 가량 참석한다. 결혼 식 다음 날 점심, 신부 집에 모여서 여자들이 옷을 계속 갈아 있는 문화가 있는데 30분에 한 벌 꼴로 갈아 입는다.

##### (2) 장례<sup>31</sup>

우즈베크인들의 장례의 특징은 묘가 없이 평평한 나무 위에 시신을 올려 두고 묻는 것과 남자들만 참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매장한다. 매장 전에 몸을 씻기고 매장 후에는 코란을 읽고 조례를 한다. 집에 와서는 함께 고인을 기리며 비록 초대 받지 않더라도 존경의 의미로 장례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사망 후 목요일에 무슬림들을 초대하는데 이것은 코란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 5) 예절<sup>32</sup>

##### (1) 가정 예절

우즈벡 종족은 어른 공경 문화가 존재 한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막내 아들이 주로 이 역할을 감당한다. 새해에 웃어른을 방문하여 인사하지만 형제들간에는 굳이 방문하지 않는다.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모임 시작 전과 끝날 때 최고령자 또는 최상위 직급자의 선도에 따라 양손으로 본인의 얼굴을 쓸어 내리는

---

<sup>30</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6일 침켄트 내 한 한국식당에서 현지인 살도르(한국어 통역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31</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7일 침켄트 인근 악수켄트 지역에서 현지인 모함맛(차 수리공)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32</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1일 침켄트 내 자바담 지역에서 현지인 어들(은퇴한 택시운전사) 외 2명 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의식을 실시한다.

## (2) 손님 접대 예절

우즈벡 종족은 대체로 손님을 후히 접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적조차 대접하였는데, 그것은 접대하는 것이 용기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그들의 고대속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들을 상석에 앉히는데 이것은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석은 보통 벽 안쪽으로, 기대 앉을 수 있는 곳이다. 우즈베크인들은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는 일반적으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보통 손님이 방문하면 차와 빵, 그리고 초콜릿 등을 내어온다. 우즈벡 종족을 포함한 전 중앙아시아에는 차(茶)문화가 발달해 있다. 손님에게 차를 따를 때는 차를 잔 가득 담지 않는데, 가득 담는 것은 떠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는 차를 가득 따르기도 한다. 손님들이 자리를 뜰 때 빵을 싸주는데, 빵은 거룩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이들은 식사 때 보통 겸상을 했다.

## (3) 인사 예절

인사를 할 때는 '말레이꿈 아살람' 이라고 말하며 악수를 한다. 예로부터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은 원래 남성들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다. 악수를 할 때는 서로 상대방의 건강이나 개인적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른에게 존경의 의미를 표시할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린다.

## 6) 금기<sup>33</sup>

식사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빨뽀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뜨는 것은 실례이다. 그 이유는 보통 빨뽀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음식으로 가장 주된 요리이기 때문이다. 우즈베크인들 사이에는 춤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큰 잔치를 벌이면 반드시 함께 춤을 춘다. 이때 여성이 남성에게 춤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대단한 실례이다. 또한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인사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으름' 이라고 한다. '논' 이라고 하는 우즈벡 전통 빵은 매우 크기 때문에 빵을 손으로 잘라서 상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때 빵을 뒤집어서 엎어 놓으면

<sup>33</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5일 침켄트 내 사이람 지역에서 현지인 알레스한(아잔샤) 외 1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안 된다. 우즈벡인은 순박한 면과 호전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sup>34</sup>

## 7) 요약

우즈벡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첫 번째 만나면 아는 사람, 두 번째 만나면 친구, 세 번째 만나면 가족이다.’ 침켄트내 우즈벡인들의 문화적 특징은 관계중심적,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을 공경하고 손님들을 환영하여 특별히 상식에 모시며 이웃들인 마할라 구성원,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대규모로 결혼식을 갖는 것이 이러한 관계 중심적 문화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우즈벡인들은 이러한 자기들만의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어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우즈벡만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계 중심으로 우즈벡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즈벡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극진하게 처음 만나는 손님들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된 격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슬람의 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우즈벡인들을 향한 선교전략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공동체적인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즈벡인들이 지속적인 셀 모임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 7. 교육분야

### 1) 개요

침켄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우즈벡인들은 대학교를 제외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현재의 교육정책에 만족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학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사교육과 과외활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2) 현황<sup>35</sup>

---

<sup>34</sup> 우즈베키스탄 리포트 [www.uzbek.co.kr](http://www.uzbek.co.kr)

<sup>35</sup> 본 항목은 2007년 1월 1일 침켄트 내 자바담 지역에서 현지인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인 쉬꼴라는 무료로 제공된다. 쉬꼴라에는 카작학교, 우즈벡학교, 러시아학교 등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1년에 2000달러 가량의 학비가 필요하다.

우즈벡 학교는 우즈벡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우즈벡어, 문학, 카작어, 영어, 독일어, 역사 등을 가르친다. 또한 우즈벡 문화, 춤, 문학 등을 우즈벡 민족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모든 우즈벡 학생이 우즈벡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고 70~80% 가량의 학생이 민족학교로 진학하며 한 반의 학생수는 20~24명이다.



<그림 Ⅲ- 7 남카작 주립대학교 복도>

### 3) 인식

#### (1) 교육열<sup>36</sup>

사교육 기관과 사립학교가 존재하며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가정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아 교육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침켄트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월 500달러 가량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는 의지가 높지만 1년에 2000달러 가량의 등록금이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한다. 국립대학교의 수준이 사립대학교보다 높으며 이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비해 국립대학교의 학비가 더 비싸다.

#### (2) 대학 진학률<sup>37</sup>

대학 진학률은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낮은 진학률을

<sup>36</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7일 침켄트 내 악수 지역에서 현지인 모함맛(차 수리공) 외 1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37</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1일 침켄트 내 자바담 지역에서 현지인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보였고 특별히 우즈벡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기술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았다. 보통 한 반에 2명 정도가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이는 비싼 학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우즈벡인의 특성상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전체 대학생 33만여만명중 우즈벡인은 1%를 초과하는 3772명이다.<sup>38</sup>

### (3) 선호 직업<sup>39</sup>

선호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나 주로 사업가, 법조인, 의사,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을 공통적으로 선호한다.

## 4) 요약

침켄트 내 우즈벡 종족의 교육열은 상당하고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현행 교육체계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싶은 열망도 상당하지만 1년에 2000달러에 가까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즈벡인들의 대부분은 직업으로 의사와 선생님을 선호한다.

우즈벡족의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우즈벡인들의 교육에 대한 상당한 열정을 이해해야 한다. 우즈벡 종족 내에서도 한국의 과외활동 혹은 사교육과 비슷한 형태의 교육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교육시설로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별히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한 접근도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 8. 종교분야

### 1) 개요

카자흐스탄 우즈벡 종족은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살고 있다. 남부 지역의 침켄트라는 도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가깝기 때문에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하다. 침켄트에 사는 우즈벡 종족은 이슬람 중 수니파이며 최근

<sup>38</sup> 통계자료집 「Statistical Real Book of Kazakhstan 2005」중 발췌했으며 본 항목은 2004/2005 대학교 학생구성을 토대로 하였다.

<sup>39</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3일 침켄트 내 메디컬 아카데미에서 현지인 의대생 리살과 몰다르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카자흐스탄 남쪽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온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 원리주의를 우즈벡 종족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즈벡인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sup>40</sup> 카자흐스탄의 우즈벡 종족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우즈벡 종족과 같이 강한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가 종교에 영향을 미친다. 우즈벡 종족의 종교적 특성은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 2) 종교현황

우즈벡 종족 대다수가 이슬람 교를 믿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즈벡 종족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다른 종족 보다 이슬람에 대한 신앙심이 깊은 편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우즈벡 종족 보다는 신앙심이 깊지 않다. 카자흐스탄에는 모스크가 600개가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모스크가 증가했다. 침켄트 인근지역인 투르키스탄과 싸이람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생각할 정도로 모스크가 많다. 종교 지도자의 계급은 므프티, 이맘, 몰다, 아잔샤 순이다. 므프티는 카자흐스탄 무슬림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이다.<sup>41</sup>

## 3) 종교특징

### (1) 행동양식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 가정에서 최고 연장자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 알라의 복 받기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또 우즈벡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를 하는 데 만날 때 ‘앗살람 알레이쿰’이라는 인사말을 하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알라의 편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할랄 푸드<sup>42</sup>라는 것이 있는데 할랄 푸드는 모든 음식에 적용이 되며 실제로 종교성이 강한 무슬림은 이 할랄 푸드 만을 먹는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이러한 규정은 잘

---

<sup>40</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2일 침켄트 내 A교회에서 아따벡(자동차 무역상)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41</sup> 본 내용은 2008년 1월 5일 침켄트 인근지역인 싸이람에 있는 모스크에서 현지인 알레스 한(아잔샤-기도하게 하는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sup>42</sup> 할랄은 공인된 이슬람교 성직자가 신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가진 비스밀라 주문을 외우면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이 의식을 거친 고기로 만든 음식을 할랄푸드라고 한다. <출처: 미디어 다음 2005년 7월 24일자 박혜준 프리랜서>

지켜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할랄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먹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여성 무슬림들은 히잡을 두르는 대신 와람말이라는 스카프를 두른다고 하지만 도시의 많은 여성들은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 (2) 종교의식

많은 무슬림들이 무덤에 와서 알라에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무덤의 주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들은 그 무덤의 주인들이 자기들을 위해 알라에게 기도해준다고 믿는다.<sup>43</sup> 성지순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가운데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sup>44</sup> 이슬람 이전의 샤머니즘(여러 신들과 악마, 영혼 등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슬람과 결합되어 남아있다. 침켄트 지역에서는 영적으로 강한 무당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슬람식 기도문 암송이나 금식 등 이슬람 관습을 샤머니즘의 최면의식과 결합한 예식을 수행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내세를 믿는다. 그래서 현세에서의 업에 의해 내세가 결정되며 알라가 심판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세관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드리고 금요일은 오후 1시에 모스크에서 주마라 하는 모임을 갖는다. 하지만 침켄트 시내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무슬림들은 이러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 기상에 따라 정확한 기도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스크에서 매일 시계로 시간을 표시한다.

< 표 Ⅲ- 3 이슬람 기도 명칭 및 시간 >

명칭	시간
밤닷	미명에 해뜨기 직전 7시쯤
페슨	정오 2시쯤
아슬	해지기 2시간 전
삼	해가 지고 난 이후 노을이 질 때
쿠프단	해지고 1시간 반 후

## (3) 종교적 감수성

<sup>43</sup> 본 내용은 2008년 1월 5일 침켄트 인근지역인 싸이람에 있는 모스크에서 현지인 알레스 한(아잔샤-기도하게 하는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sup>44</sup> 본 내용은 2008년 1월 2일 침켄트 인근지역인 싸이람에 거주하는 현지인 굴바오르(40대중반)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전에는 종교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수의 대학생 집단은 자신이 무슬람이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5</sup>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기도할 때 주로 건강이나 일상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 부를 위해 기도 한다. 대부분의 우즈베크인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개종자나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다가 그래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멀리한다.<sup>46</sup>

#### (4) 종교적 개념

우즈베크 무슬림들은 기도를 할 때 죄 용서를 구하고, 라마스라 불리는 우즈베크어로 된 율법 같은 것을 읽는데 이들은 이것을 명령이라고 여기고 있다. 종교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 한다고 한다<sup>47</sup>. 다른 이슬람국가나 종족보다는 덜하지만 개종을 하면 은근히 따돌리기도 하고 배신자라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 4) 종교지도자

카자흐스탄 내 이슬람 최고 지도자인 무프티는 전국 각지의 이맘<sup>48</sup>들 중 한 명으로 선출된다. 여러 이맘이 모인 가운데 추천을 받아서 뽑히기도 하며 직전 무프티가 한명을 지명해서 뽑기도 한다. 이맘은 주요 장소(도시)에 한 명씩 배치되고, 그 밑에 몰다, 모하짐, 아잔샤 순으로 계급이 나열된다.

#### 5) 정치와 종교의 연관성

중앙아시아는 731년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화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종교로서 정착되었다. 이슬람교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의 샤머니즘, 애니미즘적 요소와 공존하게 되었다. 소련 붕괴 후 카자흐스탄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면서

---

<sup>45</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3일 침켄트 내의 남카자흐스탄주립대학교 현지인 경제학과 학생 6명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46</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3일 침켄트 내 함자지역에서 모스크 이맘 수행원 모하메잔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47</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3일 침켄트 내 남카자흐스탄 주립대학교에서 침켄트 경제학과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48</sup> 이슬람교 교단 조직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직명으로 집단적으로 예배할 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

정치적인 목적과 부응하여 이슬람교가 민족 종교로 부상하였다. 이슬람의 민족종교화는 투르크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며 따라서 반슬라브, 반러시아 감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 요약

우즈벡종족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종교성이 가장 강한 종족으로 평가되지만 실제로 중동이나 기타 이슬람 국가들에 비하면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다수의 젊은 우즈벡인들에게 있어 이슬람은 명목상의 종교이다. 또한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타 종교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점은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선교적 접근이 더 용이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근래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터키 등지에서부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침투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이슬람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9. 기독교 상황

### 1) 기독교 개요<sup>49</sup>

우즈벡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으며, 구약 성경은 2008년 내에 완성 될 예정이다. 종족언어로 된 예수 영화가 있으나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우즈벡어로 된 기독교 방송은 없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돈을 주고 무슬림을 산다는 인식이 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즈벡 종족은 복음에 대해 열려 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친척을 초대하여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물으며 받아들이지 않지만, 계속하다 보면 받아들이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절자라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살면서 카자흐스탄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

<sup>49</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2일 침켄트 내 A교회에서 현지인 발리한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2) 선교에 대한 접근방법<sup>50</sup>

우즈벡 종족을 위한 우즈벡어로 된 신앙 서적과 신학서적의 출판이 필요하다. 우즈벡 종족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회심자들이 성장을 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침켄트는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성행하고 있으며 과거 소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슬람교와 공산주의에서 파생되는 영이 강하다. 특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며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독립 이후에는 러시아 문화, 특별히 음란한 문화가 많이 유입되면서 음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분열의 영 또한 강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매우 높다.

침켄트에 있는 A교회는 현재 셀그룹을 적용하고 있다. 셀그룹은 우즈베크인들이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전략적인 전도방법으로 평가된다.

## 3) 요약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인은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인보다 복음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상과는 달리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취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토론과 질의로 그 해답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인들이 복음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즈베크인들을 전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10. 요약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벡 종족은 종족의 특성상 공동체를 매우 중시한다. 이들은 문화적 자부심이 매우 높으며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며 전통도 매우 잘 지켜나가고 있다. 타 중앙아시아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정체성을 이슬람교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민족의 거의

<sup>50</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2일 침켄트 내 A교회에서 현지인 발리한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이들에게 종교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무슬림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민족적 정체성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크인들이 대체로 종교적 성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생각만큼 배타적이지 않으며 기독교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특별히 침켄트는 기독교의 복음전파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종교정책상 개인의 종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침켄트에 있는 우즈벡 종족을 전략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향후 중앙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침켄트 지역을 이용한 우즈베키스탄 선교의 장기전략을 세움으로써 세계 선교계의 흐름인 네트워크 사역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즈벡 종족과 우즈베키스탄의 선교를 위한 이원화된 선교전략이 필요하며 현지 사역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앙아시아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IV. 우즈베키스탄 상황

### 1. 사회적 이슈

#### 1) 정치 분야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후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에는 카리모프 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며 독재정치를 펴고 있으며 독재가 심해지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sup>51</sup>. 도시 곳곳에는 비밀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건물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카리모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sup>52</sup> 그 때문에 우즈베크인들은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마르칸트에 외국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부장은 본 조사팀이 인터뷰 당시 카리모프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외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도 꺼려하며 다른 화제로 돌리기를 조사팀에게 요청했다.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8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중고등학생으로부터 대학생까지 동원하여 목화밭 근처에서 합숙을 시키면서 강제로 목화를 따게 한다. 대학생은 하루에 목화를 60kg 따야 하며 양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부족한 양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제 2의 목화 수출국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목화를 따는 8월말 에서 10월 초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나르기자는 목화를 따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어 4개월 동안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

#### 2) 경제 분야

2008년 1월 본 조사팀이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는 결인이 많이 있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제 폐쇄정책을 쓰고 있어서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 가정경제는 점점 붕괴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 특히

---

<sup>51</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7일 침켄트 내 Mega 쇼핑 몰에서 현지인 통역 살도르 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52</sup> 조선일보 권경복 우즈베키스탄 특파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23일 대선 2주전에는 타슈켄트 전 시내에 20m마다 경찰이 한 명씩 배치되었다고 한다.

젊은 남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지로 떠나가고 있다.<sup>53</sup> 국민들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sup>54</sup> 카리모프 대통령 부임 초기에는 경제 발전이 있었으며 그 당시 우즈베키스탄에는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왔다. 그러나 카리모프 대통령이 해외자본의 유입이 우즈베키스탄의 체제를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하여 쇄국정책을 발표한 이후 경제는 급속히 침체되기 시작 했다.

### 3) 교육분야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 남녀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마르칸트의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는 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하여 현재 학생수가 260명에 이른다. 이는 이 대학교 총 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남성들이 한국어 과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의 젊은 남녀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에게 뒷돈을 주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할 의욕을 잃고 돈이 많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매우 수동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부나 모임을 하지 않는다.<sup>55</sup>

## 2. 종교 상황

### 1) 9.11 테러 사건 이후의 종교법 변화<sup>56</sup>

---

<sup>53</sup>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0.8%이지만 세계은행은 인구 2660만 명중 실업자가 30~50%일 것으로 추정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 6조5500억m<sup>3</sup>(세계 10위), 원유 추정매장량 5억2000만 배럴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다. 그러나 시내에선 로열더치셀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너코필립스 같은 메이저 에너지 기업의 사무소가 광고판을 볼 수 없다. '체제 붕괴'를 우려해, 카리모프가 폐쇄 정책을 취한 탓이다. 이 탓에 원유의 70%는 탐사도 안됐고, 1인당 국민소득은 469달러에 머물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특파원 르포 2007년 12월 26일 - 권경복특파원>

<sup>54</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13일 타슈켄트에서 현지 선교사 C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sup>55</sup> 본 항목의 조사는 2008년 1월 12일 사마르칸트 외국어대의 초빙교수인 김종의교수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sup>56</sup> 본 항목의 조사는 2005년 8월 7일자 국민일보 함태경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신자의 신앙을 다른 신앙으로 개종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그 외 선교사역에 속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현지인을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첫 번째 위반 시 벌금형이나 15일 이상 구류에 처하며, 추가 위반 시 최소 500~1000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기독교 관련 문서의 제작과 수입이 모두 불법행위이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교회에 나올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종교법은 개인이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 종교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도시에서 종교를 가르치면 규정 위반으로 기소 된다. 모든 종교 활동은 종교 법인에 등록을 하고 사법기관에 등록한 후에야 정식활동이 가능하다. 미등록 활동 시 형사법 및 행정법을 적용 처벌하며 50~10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 이상 구류에 처한다.

## 2) 정부의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기 때문에 이슬람교 자체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독립후 수니파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민족운동과 이슬람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수피즘 신자들이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집회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나 이슬람 과격주의를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로 여기고 있어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1990년 동부지역인 페르가나 계곡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세력과의 충돌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의 90%는 수니파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평화주의자라고 부른다. 정부도 수니파 무슬림이 더 많은 것이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더 선호한다.<sup>57</sup>

## 3)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우즈베키스탄은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 순위 11위의 국가이다.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 항쟁 발생 이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으며 정부는 기독교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속속 추방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중 기독교인을 구속하여 추방하기도 했으며 TV에서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방영하여 기독교인이 주변 친척과 지역 경찰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기독교로의 개종을 제한하는 공식적 정책은 없으나 이슬람교에

<sup>57</sup> www.uzbek.co.kr 윤성학(CIS Corporation 컨설턴트)씨의 칼럼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가족이나 지역당국에 의해 종교를 바꾸도록 압력을 받는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이 불타고 체포되어 투옥당하기도 한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즈베크인에게 있어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더 이상 마을사람들과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 이웃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그 곳에 모인 전원을 체포한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한 집에서 계속적으로 셀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집을 계속 바꾸면서 셀 모임을 갖는 상황이다. 정부는 모든 종교생활을 관찰하는 종교문제위원회(CRA)를 설립하여 등록하지 않은 단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모든 노방전도 활동과 종교적인 문서를 수입하고 배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sup>58</sup>.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많은 사역자들은 비지니스, NGO의 형태로 우즈베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교육을 통해 국민이 계몽되어 정부에 반기를 들것을 우려하여 NGO단체의 교육 사업을 금지하였고, 무슬림과 러시아정교회 교인들에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NGO를 추방한 적도 있다<sup>59</sup>. 언론에서는 2005년 여름에는 지역방송국 다큐멘터리를 통해 “개신교 교단들은 극단주의자” 라며,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테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방영한 적이 있다.<sup>60</sup>

#### 4) 기독교 상황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공식적인 신학교인 타슈켄트신학교가 있으나 우즈베크인들은 입학하지 못하고 우즈베크어로도 가르치지 못하며 소수민족만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선교사들은 연합하여 우즈베크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신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중에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카자흐스탄 침켄트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자선행위, 운동용품, 약품, 컴퓨터 등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우즈베크인들과 접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sup>58</sup> 본 내용은 오픈도어 선교회의 인터넷 자료와 현지인 발리한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sup>59</sup> 본 내용은 2008년 1월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C선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sup>60</sup> <http://fim.or.kr> 2007년 8월 28일 작성한 임일규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V. 우즈벡종족의 선교전략

### 1. 선교의 방해요소

#### 1) 우즈벡 종족적 관점

##### (1) 기독교에 대한 반감

우즈베크인의 의식에는 이슬람이 종교이상의 의미로 자리잡고 있다. 이슬람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따라 무슬림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는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하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다. 우즈베크인들은 구 소련시절에 러시아정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러시아정교를 외래종교로 보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도 러시아정교와 같은 외래종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언어의 한계

우즈베크인들은 러시아어보다는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종교에 있어서도 러시아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러시아의 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즈베크어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 선교사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우즈벡 종족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우즈베크어를 배운다.

#### 2) 우즈베키스탄 국가적 관점

##### (1) NGO추방 및 교육사업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NGO의 대다수가 기독교계라는 것과 이들이 NGO사업뿐만 아니라 선교사역도 같이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많은 NGO단체들이 추방당했다. 특히 한국어 등 교육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정부는 NGO를 통한 교육사업을 전면 금지했다.

## (2) 지방 사역의 어려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외국인이 수도 타슈켄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면 의심하기 때문이다. 지방 거주외국인들은 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없으면 국가에서 의심하고 수익을 크게 내면 국가의 관심과 감시를 받게 된다. 최근 카리모프 대통령이 지방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인에 대한 좋은 대우를 약속했지만 국가행정 처리의 미숙으로 대통령의 명령이 지방에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지방에 살기에는 불이익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 (3) 정부의 기독교 핍박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을 기준으로 기독교 핍박 세계 1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수도를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교회들은 강제로 폐쇄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인중 믿는 사람이 생기면 정부에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집에 성경책이 한 권 이상 있거나 모임을 갖다가 적발되면 바로 체포된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안으로의 성경책 유입은 물론 밖으로의 유출도 강력하게 감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종교법이 강화되었으며 기독교에 대한 제약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sup>61</sup>

## (4) 표기법으로 인한 문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공식 표기어로 라틴어를 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즈베크인들은 라틴어보다는 키릴어를 표기어로 쓰기 때문에 우즈베크어 성경도 키릴어로 되어있다. 15년전에 바뀐 표기법으로 인해 라틴어로 표기하는 젊은 세대와 키릴어로 표기하는 중년세대사이에는 언어의 표기에 있어 문제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침켄트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인들은 서로의 글을 읽지 못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언어장벽으로 인해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의 보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sup>61</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13일 타슈켄트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교사 C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 2. 종족 선교의 가능성

### 1) 성공사례(Case Study)

#### (1) 카자흐스탄 침켄트

침켄트의 A교회는 현재 셀교회 모델을 적용하여 셀그룹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관계를 맺게 한다. 우즈벡 종족은 관계를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셀그룹을 이용한 관계맺기가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조사팀이 우즈벡인 셀모임에 초대받았는데 이 모임에 두번째 나온 사람에게 셀리더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침켄트는 우즈베키스탄과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왕래를 한다. A교회의 담임목사에 의하면, 얼마 전에 우즈벡 청년 4명이 잠시 침켄트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얼마 후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갔다. 또,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면서도 매주 셀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침켄트로 오는 사례도 있다. 침켄트는 지리적으로 보나 인구구성으로 보나 우즈벡 종족이 복음을 접하기에 유리한 도시이다.

현지인 성도가 주변의 무슬림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례가 있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싫어하고 이 같은 시도에 대해 냉대했지만 6개월여가 지나자 이들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웃이 믿는 성도의 집에 찾아와 그들의 문제점을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한다. 현지인 성도의 시도와 끊임없는 인내로 마침내 이슬람교도였던 이웃은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 같은 방법은 우즈벡인 사회에 있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선교전략인 것으로 드러났다.<sup>62</sup>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속해있는 한 기독교단체에서는 여름에 열흘 정도 침켄트 지역으로 가서 현지 A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한다. 이들은 비록 짧은

---

<sup>62</sup> 본 항목은 2008년 1월 8일 현지인 발리한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기간이지만 우즈베크인을 포함한 현지인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식사에 초대를 하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나간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기 전에 관계를 맺은 현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파티를 하다가 간증과 복음제시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서울대학교 팀을 통하여 3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sup>63</sup>

##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공식적으로 교회를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다. 종교법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우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관계중심의 소규모 셀 그룹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사역자들은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성경공부를 하거나 1:1양육 등을 통하여 현지인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관계를 중시하는 우즈베크인의 성향은 셀 그룹 사역을 하기에 알맞으며 공개적인 사역이 힘든 현지 상황으로 인해 소규모사역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 모임이 생겨서 여러 분과에 걸쳐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있다. 이는 교단을 초월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역자들이 연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또 여러 분과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교파를 초월한 모임의 또 하나의 사례는 우즈벡 포럼이다. 이 포럼은 현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년에 2~3회 정도 개최된다. 이 포럼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등지로부터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며 우즈베키스탄 선교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교사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NGO소속으로 활동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집중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비자를 통해서 현지에 들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하면서 선교도 동시에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방법은 사업과 선교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부족해서 한 가지 일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선교를 위해서는 감시를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현지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 그래

<sup>63</sup> 본 항목은 2007년 12월 30일 A교회 사역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며 공영방송의 프라임 시간대인 8~10시에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지인 사역자들은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현지인들과 접촉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선교사는 드라마 대장군을 함께 보고서 대장군이라는 인물의 성격 특성은 예수님에 비유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 2) 복음의 접촉점

### (1) 마할라 중심적 접근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거주하는 우즈벡종족에 있어서 이웃공동체인 마할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할라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며 마할라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할라의 장인 악사칼은 그가 복음을 접하여서 변화되면 그가 속한 마할라 전체가 변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악사칼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를 통한 접근 한다면 이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우즈벡 성도를 통한 선교적 접근

카자흐스탄 침켄트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벡종족은 국가적특성에 따라 정치, 경제적으로 받은 영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매우 비슷한 성향을 나타낸다. 이들은 생활, 문화, 사회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으며 생김새도 같기 때문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침켄트에서 훈련 받은 우즈벡 성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즈베키스탄 선교에 있어 매우 좋은 접촉점이 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자들이 카자흐스탄 남부지방으로 많이 일을 하러 넘어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이 활성화된다면 그들이 믿고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 (3) 한국어를 통한 접근

중앙아시아에 사는 대부분은 언어를 2개 이상 구사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며 타 민족에 비해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우즈벡 종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러시아와 우즈벡어를 구사하며 최근 들어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 한국인의 경우 이 같은 그들의 관심을 이용해서 언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영화, 드라마 등을 통

해서 우즈베크인들과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한국어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3) 우즈베크인의 필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언어표기를 공식적으로는 라틴어로 표시하기 때문에 키릴어로 표기된 성경보다는 라틴어로 표기된 성경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30대 이후의 현지인들은 라틴어가 아닌 키릴어로 그들의 문자를 표기한다. 이에 따라 라틴어 뿐만 아니라 키릴어로 된 성경도 필요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는 성경책의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크어 성경은 인근 국가에서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출판량이 터무니 없이 작기 때문에 우즈베크어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내에는 그들의 언어로 표기된 신앙서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의 성경책밖에 읽지 못하는 형편이다. 조용기 목사님의 저서 몇 권이 우즈베크어로 번역되긴 했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미국에서 출판되어 현지로 보내진 것이다. 현지의 믿는 성도들은 고전 신앙서적이 우즈베크어 및 러시아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내에는 우즈벡 종족을 위주로 하는 교회가 없다. 대부분의 교회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설사 우즈베크인들이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어로 듣는 것보다 감동이 덜하며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러시아어로 된 말씀들을 들을 경우 기독교를 러시아의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즈베크어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변할 확률이 낮다. 그들은 우즈베크어로 설교할 사역자를 원하고 있으며 우즈베크인만을 교회 또한 원하고 있다.

## 3. 선교전략 도출

### 1)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종족

#### (1) 종족특성을 통한 접근(마할라를 이용한 선교)

우즈베크인들은 공동체성이 강하다. 특별히 우리 나라말로 이웃사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할라의 구성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결혼식 등의 중요한 경조사에는 대부분 함께 하는 등 친척만큼이나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조사팀이 이번에 만났던 우즈벡 현지인은 한 가정이 돌아오면 온 마할라가 돌아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마할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우즈베크인들의 두드러진 공동체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마할라이며 따라서 우즈베크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마할라 단위로 지속적인 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 (2) 경제를 통한 접근

### 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복음전과

카자흐스탄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우즈벡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 합법 혹은 불법으로 우즈베키스탄 국경과 인접한 침켄트로 넘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방 도시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그룹 단위로 넘어오는데, 넘어온 후에는 고용주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생활한다. 특별히 카자흐스탄 건설붐에 따라 해마다 많은 수의 우즈벡 노동자들이 침켄트로 넘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사역자가 노동자로 가장하여 그들과 함께 숙식하며 복음을 전하거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창업 및 고용을 통한 복음 전과

침켄트는 경제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면화를 이용한 공업에 대해 면세혜택을 준다. 한국에 있는 기업가가 현지에 진출해서 의류공장을 세운다면 면세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다소 낮은 임금에 현지인을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지인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재봉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류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소액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운 이들은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떠나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파하거나 현지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 (3) 교육을 통한 접근

### ① 교육기관을 활용한 선교

우즈벡 학생들에게 사교육과 과외활동이 존재하는 등 우즈베크인들의 교육열은 상

##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

당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침켄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즈베크인들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현행 교육 체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크인들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고 개개인의 재능을 계발해 주기 위한 방과 후의 교육은 아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영어와 컴퓨터 혹은 음악과 미술 등의 교육센터를 확보할 경우 우즈벡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이 우즈벡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함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 ② 카자흐스탄 국제 기독교 대학교 설립 및 지원

카자흐스탄의 대학교에는 아직까지 공산주의의 잔재로 학점을 돈 주고 사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실정이다. 한동대학교를 모델로 하여 지성과 정직성, 인성에 이념을 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복음화는 물론 중앙아시아 전체의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교육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그들의 지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교수진을 구축하고 인성과 정직성을 계속해서 훈련 시킴과 동시에, 크리스천 교수님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교체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한동대학교와 교환학생 시스템을 갖춘다면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4) 선교적 필요를 통한 접근

### ① 우즈벡종족을 위한 교회 필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는 러시아어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로 복음을 접할 때 하나님을 러시아의 신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우즈베크어로 설교할 때 우즈베크인들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며 받아들이기에 훨씬 유리하다. 우즈베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 침켄트에 있는 우즈벡 종족에게 현재의 우즈베크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속히 우즈벡 종족을 위한 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사역자의 우즈베크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

### ② 카자흐스탄 내 신학교 지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선교를 금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있는 우즈벡 종족을 활용한 선교가 대두되었다. 한국 교회가 풍부한 물적 인적자원 모아 침켄트 지역에 우즈

벡 종족과 그 외의 소수 민족들을 위한 신학대학교를 만든다면 많은 민족들이 이 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

### ③ 성경 및 서적 번역사업

카자흐스탄에는 우즈벡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즈벡 민족이 교회를 가더라도 설교는 러시아어나 카작어로 선포된다. 그렇기에 우즈벡 성도들을 위해 우즈벡어 성경과 기독교 책자 출판, 기독교 미디어 번역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는 것은 카자흐스탄 우즈벡 종족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즈벡어 번역 활동을 한국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5) 단기 선교팀의 역할

대학생 신분으로 카자흐스탄에 들어간다면 현지인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FR의 표면적 목적인 지역 및 종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에게 호감을 가진다. 2주 내지 3주 정도의 일정으로 현지로 가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이어 장기사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2) 우즈베키스탄

### (1) 경제 및 지역개발을 통한 접근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하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유효하다. 비즈니스를 통해 우즈베크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축업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보수를 가축으로 주어서 그들이 또 다른 목축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우즈베크인은 복음 수용 이후에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지방에서는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생활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으며, 특별히 실업자들에게도 직업을 마련해 줄 수 있다.

## (2) 교육을 통한 접근

우즈베크인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사설교육기관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음악과 미술 교육을 하는 사교육기관이 많지 않다. 만약 이 분야를 통해 접근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 전반에 걸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대학<sup>64</sup>이 있다. 이들과 한동대학교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대학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3) 매체를 통한 접근

우즈베크인들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즈베크인들과의 선교적 접촉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 선교사는 대장금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국영화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영화는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 (4) 선교적 필요를 통한 접근

한국교회가 우즈베키스탄의 선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많은 제한들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우즈베키스탄의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선교가 중앙아시아 선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필요를 알리고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적 제약이 많은 특성상, 이웃나라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우즈벡 종족을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웃 나라에 있는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으며 셀그룹이나 양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에 거주하는 우즈벡종족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5) 한동대 및 GFR의 역할

---

<sup>64</sup>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주 사마르칸트시의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2003년에 개설되었으며 현재 260여명의 학생이 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GFR은 한동대학교에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교환 학생들이 한국 문화권에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양육되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GFR에서 Mission팀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어 영어교육이나 선교사 자녀 교육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대에서 단기팀을 결성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즈벡인들과 함께 캠프를 할 수 있다. 대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마음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이용해 그들을 모아 캠프를 열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관계를 가진 후에 복음을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 3) 카자흐스탄 침켄트와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 (1) 필요성

##### ① 전략의 유효성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즈베키스탄 인접 국가에서의 우즈벡 종족 선교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을 제시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지역을 이 전략의 중심지로 제시했는데,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에서 우즈벡 종족은 15%의 인구 구성을 차지하지만, 카자흐스탄 내에 있는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침켄트에서의 복음 전파와 양육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다 유리하며, 위에서 제시한 선교 전략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 ②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지역에서 우즈벡 종족 선교 이후 이들을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우즈벡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주고 신앙적 조언자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때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즈벡 종족을 선교하고 양육한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 있고 우즈벡 종족이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우즈베키스탄이다. 따라서 우즈벡 종족을 선교하고 양육한 선

교사가 이들을 사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

## (2) 현황

현재 침켄트에 우즈벡 종족 선교를 위한 비전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을 선교하고 이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우즈벡 종족 훈련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교회가 있다. 만약 이들의 비전에 동의하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가 있다면, 이들 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즈베키스탄 내에 우즈벡 포럼과 비전 2030이라는 초교파적 연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기능별로 나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합은 파송 단체를 뛰어넘는 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이러한 연합은 국가를 뛰어넘는 연합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네트워크 기지 마련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간의 국가를 뛰어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네트워크를 위한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 또한 카자흐스탄 침켄트를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전략에 대한 사역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이러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며 그 장으로 파송 교단과 파송 단체가 네트워크 형성 초기 단계에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파송 교단과 파송 단체 중심의 네트워크는 점차적으로 초교파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교자원이 한 가지 일에 중복 투자되는 일을 막고 보다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셀그룹이며 카자흐스탄에서는 우즈벡 종족을 셀그룹의 리더가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들 셀그룹 리더들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전임 선교사는 센터적 역할을 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에는 센터적 역할을 할 네트워크 전임 선교사가 타슈켄트에 위치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영혼을 돌볼 전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 (4) 국제지역연구소의 역할

한동대학교는 특정 교단이나 선교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에 설수 있다. 또한 대학교라는 특성상 학문적인 탁월성을 추구하고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특징을 가진 곳이다. 따라서 한동대학교는 네트워크를 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한동대학교는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한동대학교는 선교적으로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사이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우즈베크 포럼과 같은 선교 활동을 한국 교계와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인 침켄트에 사는 우즈벡 종족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벡 종족 역시 독립 이후 그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슬람은 그들에게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우즈벡인들이 이슬람교도이며 타종교로의 개종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우즈벡들은 공동체생활을 하며 마할라는 그들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종교를 바꾸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우즈벡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런 핍박은 카자흐스탄보다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심하다.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종교적 제약이 심하며 이 국가에서의 우즈벡 종족 선교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즈벡 종족이 많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의 침켄트나 키르기스스탄의 오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침켄트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및 종족선교는 추후에 우즈베키스탄을 선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본 조사팀은 카자흐스탄 침켄트를 위주로 우즈벡 종족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켄트와 함께 주요 전략도시인 키르기스스탄 오쉬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본토에 사는 우즈벡 종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효과적 선교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켄트와 오쉬를 이용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두 도시와 우즈베키스탄 본토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선교사와 한동대학교의 네트워크, 그리고 선교사들간의 네트워크는 우즈베키스탄과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즈벡 종족의 복음화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절실하다.